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그 나날은
사색이
계십니다

He is alive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임목사 이기봉

Assistant Pastor

교육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Sam Kim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461 Orange Ave, Los Altos, CA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김용현 전도사
Samuel Kim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같이
Together

대표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김대환 집사
Daniel Kim

말씀
Sermon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15절

담임 목사
Senior Pastor

합심 기도
United Prayer

다같이
Together

봉헌 및 찬양
Offering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Together

광고
Announcements

담임 목사
Senior Pastor

* 찬양
Blessing Song

삼중 축복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담임 목사
Sen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기도 순서

	10/26	11/2	11/9	11/16	11/23
1부	김보라	성찬/전통예배	이종록	김승연	박소려
2부	김대환	이준하	문하영	박세례	주보배

1. 성찬 예배

다음 주는 성찬 예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썸머타임 해제

일시: 11월 2일 (주일) 오전 2시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2시 → 오전 1시)

3. 가정 예배지 안내

매주 주일 홈페이지에 가정예배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4. 10~11월 성경 읽기 프로젝트

범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 성경 읽기 표에 체크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생일

10.18 박세례 사모

10.20 우빛나래 성도

11월 성찬위원

1부	이중록, 김아론, 왕성균
2부	김용현, 김대환, 왕성균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고린도전서 10:1-13	고린도전서 10:14-22	고린도전서 10:23-33	고린도전서 11:1-16	고린도전서 11:17-34
Grace Kim	Sam Kim	이중록	임성호	임성호

10.26.2025

모두가 '공감'을 외칠 때 더 외롭다

요즘처럼 '소통'과 '공감'이 일상 용어가 된 시대가 또 있을까?
 SNS는 실시간으로 감정을 공유하고, 직장에서는 '공감 경영'을 외치며,
 인간관계의 해법은 늘 '경청과 공감'으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에 우리는
 왜 더 깊은 고독과 정서적 소모를 느끼는 것일까?

문제는 '공감의 기술'이 '진정한 공감'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을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춰 '공감하는 척' 하는 기술적인 행위로 오해 합니다. "힘드시죠?", "저라도 그러겠습니다."와 같은 정형화된 공감 표현은, 때로는 상대의 복잡한 감정에 대한 성의 없는 '감정적 지불'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갈등 상황에서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지는 몰라도, 상대방의 '진심'을 전달받고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상호 이해의 길'을 열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훈련'을 통해 익히는 기술 이전에,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소통은 '전달'이 아닌 '공존'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는 '다음 반론'이나 '해결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의 말에 담긴 '진짜 감정의 보화'를 찾으려는 노력이며,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이는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관계'라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둘째, '감정의 거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서적 소모만을 안겨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때 '건강한 손절'이나 '감정적 거리두기'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정신적 평온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자기애(自己愛)의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과도하게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정서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결국 소통과 공감은 '마음을 여는 열쇠'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휘두르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의 문부터 활짝 열어 나 자신의 감정과 불안을 먼저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진정한 의미의 공감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외 사역**한국 **산위예교회**

최해성 목사

필리핀 **아가페교회**

윤상현 선교사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BRIANA
GENESIS
JOSUE
LUIS과테말라 ESTEFANI
NANCY
ROBERTO
YEFERSON온두라스 CAMILA
JENNSY
LIA
ORIANA니카라과 EMELY
GAEL
OSCAR
VALENTINA우리의 **국내 사역****홀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콜롬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솔라노 지역 바카빌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랑스러운 교회

주일 예배 시간: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기도 처소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구원의 확신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육체의 성장과 생각의
깊이와 영적 성숙이 점점 확장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세계 선교로 마치는 교회



나에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 나눠주고 꾸어주며
베풀어주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훈련되고 재생산되어
파송하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 육 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기도 처소 / YouTube Live